

#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

이영은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혜선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강양희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Abstract

### A study of Spiritu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Objectives**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status of Spiritu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elated various characteristics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ride school-life and development of Spiritual-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8 christian Nursing students by using questionnaire method they are all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ir Spiritual Well-Being were measured using Spiritual Well-Being scale developed by Paloutzian & Ellison(1983) and translated by Choi(1990) and reversed by Kang(1996)

**Result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PC+  
120

The summary of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were  $63.95 \pm 10.256$ (range from 20-80)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ade( $F=6.101, p= .001$ ), type of religion( $F=17.703, p= .000$ ), In Christian, the level of devotee( $F=8.194, p= .000$ ), duration of church attendance( $F=7.947, p= .000$ ), regular attendance of chapel( $F=4.242, p= .000$ ), regular reading(study) of Bible and prayer ( $F=5.863, p= .001=0$ ), perceived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F=4.160, p= .000$ ), religion of parent( $F=9.320, p= .000$ ), perceived attitude of parenting( $F=4.146, p= .000$ ), hope to admit/transfer to other course or not ( $F=-2.050, p= .050$ )

**Conclusion** Our results were valuable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ride school-life and for the development of Spiritual-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 Spiritual Well-Being, Nursing Student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으로 통합적인 존재이다 (Shelly<sup>1</sup>, 1988) 간호의 목적은 이러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건강하도록 돋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영혜, 권봉숙, 남혜경, 오상은, 이영은, 이지원 등, 2005) 이러한 각 차원의 건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영적 안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적 안녕이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영적 안녕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영적 안녕을 포함한다 실존적 안녕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믿음, 가치, 생활양식, 삶의 질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궁극적 가치 있는 경험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인간의 대인관계는 사랑과 용서, 믿음의 표현에 기본을 두고 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연결된다 종교적 안녕은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안녕감으로서 절대자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은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의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적 안녕은 독립되어 설명할 수 없고 실존적 안녕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Paloutzian, Ellison<sup>2</sup>, 1982) 따라서 영적으로 안녕하면 절대자와 자신, 환경을 포함하는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 이러한 영적 안녕은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 가치감, 삶의 만족, 사회적 지지와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과 같은 사회 심리적 차원의

건강, 희망, 우울, 절망감 등 영적 차원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과 같은 총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최상순, 김정숙,<sup>2</sup> 1998, 이화인,<sup>3</sup> 2002, 김미향,<sup>4</sup> 1997, Koenig, Moberg & Kvale,<sup>3</sup> 1988, Herth<sup>4</sup>, 1989, Ree<sup>5</sup>, 1991, Nelson,<sup>6</sup> 1990)

간호과학은 인간의 건강을 돋는 데봄의 학문이며, 전인적 존재인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즉 전인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과정에서 영적 문제와 관련된 간호진단명의 정의가 되어 있고 또한 영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호실무 현장에서는 종종 영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간호사들 자신이 영적으로 충분히 안녕하지 못하거나, 영적 간호에 대한 훈련부족, 그리고 영적 건강차원이 모호하고 개인적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권혜진,<sup>5</sup> 1989, 최상순, 김정숙,<sup>2</sup> 1998)

간호사의 영적 안녕은 인간의 생애에 있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건전한 균형을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Carson<sup>7</sup>(1989)는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소진을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간주하면서 의미에 대한 실존적 위기라고 하면서, 간호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자신이 영적으로 안녕해야 함은 물론, 자신이 간호대상자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영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정정숙,<sup>6</sup> 1998)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발달적으로 청소년 후기(19-22세)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으로 아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한 개인으로서 전인적인 성숙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과제와 책임을 수행하며, 성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확립하고 인격과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직업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소야자<sup>7</sup>, 2004, 권봉숙, 남혜경, 오상은, 이영은, 이지원 등, 2005)

그런데 간호대학생은 비록 학생이기는 하지만 재학 중 이미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으로 나아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고 돌보게 된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도 전인적으로 잘 돌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의 가장 핵심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영적인녕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간호사,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신수정,<sup>8</sup> 2003, 송미옥,<sup>9</sup> 2003, 장인순, 김수미,<sup>10</sup> 2003, 최순인,<sup>11</sup> 2002, 김숙희,<sup>12</sup> 2001, 성미순,<sup>13</sup> 1999, 오복자,<sup>14</sup> 1996, Hungelmann,<sup>9</sup> 198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인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영성,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정도와 영적간호의 중요성 인식정도,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과 희망 및 자아개념 관계(이화인<sup>1</sup>, 2002, 이명화, 강희경, 박진경<sup>15</sup>, 2002, 김미향<sup>1</sup>, 1997, 최상순, 김정숙<sup>2</sup>, 1998) 등이 있을 뿐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그 구체적인 관련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해보고 이와 관련있는 제 특성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을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있는 제 특성들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 1) 영적 안녕

영적 안녕이란 수직적 차원에서 신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 혹은 목적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개인적 성향이며 이는 종교적 요소와 실존적 요소를 포함한다(Paloutzian, Ellison,<sup>2</sup> 1982)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 & Ellison(1982)이 개발하고 최상순(1990)이 번역하였으며, 강정호(1996)가 수정 보완한 영적안녕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정도를 알아보고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에 소재한 1개 기독교 종합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213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8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최종 분석률 88.3%)

### 3 연구 도구

#### 1) 영적 안녕 측정도구

영적 안녕 측정도구는 Paloutzian & Ellison<sup>2</sup>(1982)이 개발하고 최상순<sup>17</sup>(1990)이 번역, 강정호<sup>18</sup>(199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정된 Likert형 4점 척도이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도구범위 20~80) Paloutzian & Ellison<sup>2</sup>연구(1983)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93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0.94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3월 3일부터 동년 3월 17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각 학년 강의실에 들어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해서 구조화된 자기 기입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각 학년 대표를 통해 회수하였다

####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자료의 분석은 SPSS/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 따른 영적 안녕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평균  $63.95 \pm 10.256$ (도구범위 20~80점), 최소 38점, 최대 80점, 평균평점  $3.20 \pm 5.13$ 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실존적 안녕 정도는 평균  $32.98 \pm 4.470$ , 최소 22점, 최대 40점, 평균평점  $3.30 \pm 4.50$ 으로 높은 편이었고, 종교적 안녕 정도는 평균  $30.96 \pm 7.000$ , 최소 10점, 최대 40점 평균평점  $3.10 \pm 7.000$ 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표 1)

각 하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 영역에서 제일 높은 항목은 '나는 나의 삶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평균  $3.55 \pm 6.40$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나는 삶이 갈등에 차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3.48 \pm 6.17$ 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3.39 \pm 7.43$ 점, '삶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3.39 \pm 6.33$  점, '나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

$3.37 \pm 6.63$ 점, '나는 나의 장래가 좋게 보인다'  $3.29 \pm 7.29$ 점, '나는 나의 삶이 별로 즐겁지 않다'  $3.27 \pm 7.17$ 점, '나는 나의 장래가 좋게 보인다'  $3.19 \pm 6.26$ 점, '나는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  $3.03 \pm 6.85$ 점, '나는 나의 삶에 꽤 충실히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3.02 \pm 6.65$ 점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안녕 영역에서는 '나는 신이 인간적이 아니며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가  $3.56 \pm 6.80$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는다'  $3.40 \pm 8.40$ 점, '나는 신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3.27 \pm 8.14$ 점, '나는 신으로부터 많은 개인적인 힘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  $3.12 \pm 9.25$ 점, '나는 신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안녕감을 가진다'  $3.06 \pm 9.07$ 점이며, '나와 신과의 관계는 내가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3.00 \pm 8.76$ 점, '나는 신과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3.00 \pm 8.41$ 점, '나는 내가 신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2.88 \pm 9.17$ 점,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2.78 \pm 8.30$ 점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학년( $F=6.101$ ,  $p= .001$ ), 종교( $F=17.703$ ,  $p= .000$ ), 기독교인의 경우 신급( $F=8.194$ ,  $p= .000$ ), 교회출석기간( $F=7.947$ ,  $p= .000$ ), 교회 예배의 정기출석( $F=4.242$ ,  $p= .000$ ), 정기적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 $F=5.863$ ,  $p= .001$ ), 본인이 지각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F=4.160$ ,  $p= .000$ ), 부모종교( $F=9.320$ ,  $p= .000$ ), 본인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F=4.146$ ,  $p= .000$ ), 현재 타 학과 편입, 전과 희망여부( $F=-2.050$ ,  $p= .050$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학년에서 4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종교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기타보다 더 높았다 또한 기독교인인 경우 신급이 세례와 입교, 학습이 각각 원입보다 더 높았으며, 교회출석기간은 모태신앙, 초등학교 이전부터, 중 고등학교부터 출석한 군이 대학입학 이후부터 출석한 군보다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교회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정기적으로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본인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다고 응답한 군이 만나지 않았다는 군과 모르겠다고 응답한 군보다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았다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천주교, 불교인 경우보다, 부모의 암육태도가 성경적이라고 응답한 군이 민주적,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본 대학교의 주된 선택 등기가 기독교 대학(신앙)이라고 응답한 군이 전공이 마음에 듭, 실력에 맞추어서 선택했다고 응답한 군보다, 현재 타 학과에 편입이나 전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이 원한다고 한 군보다 영적 안녕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본인이 지각한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 $r = .627, p = .000$ ), 본 학과에 대한 만족도( $r = .438, p = .000$ )와는 중등도의 순 상관관계를, 본인이 지각한 가정 분위기( $r = .299, p = .000$ )와는 약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생각할수록, 본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본인이 지각한 가정경제상태,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입학시 재수나 편입여부, 동아리 활동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 IV. 논 의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이와 관련있는 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63.95 \pm 10.256$ , 평균평점  $3.20 \pm .513$ )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도구를 사용한 최상순과 김정숙(1998)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영적 안녕이 평균평점  $3.97$ (6점 척도)로 보통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과 연구도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본 연구는 1, 2, 3, 4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반면, 최상순과 김정숙(1998)의 연구에서는 1, 2학년 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를 사용한 반면, 최상순과 김정숙(1998)의 연구에서는 6점 척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간호학생들의 영적 안녕을 하위영역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실존적 안녕(평균평점  $3.30 \pm 4.50$ )과 종교적 안녕( $3.10 \pm 7.00$ )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 영역에서 제일 높은 항목은 '나는 나의 삶에 어떤 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로 생의 목적에 대한 안녕감이 가장 높았던 반면, '나는 나의 삶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와, '나는 나의 삶에 꽤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에서 가장 낮은 안녕감을 나타내었다 즉, 삶의 목적에 대한 안녕감은 높은 반면, 삶의 방향성과 삶의 현신도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적 안녕 영역에서는 '나는 신이 인간적이 아니며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역산문항)와,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는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내가 신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와,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에서 가장 낮은 영적 안녕감을 나타내었다

즉, 신(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대한 안녕감은 높은 반면, 신(하나님)과의 교제부분에서는 안녕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삶에 대한 현신 및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신앙 혹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은 학년, 종교, 기독교인의 경우 신급 교회출석기간), 교회 예배의 정기출석 여부, 정기적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여부, 본인이 지각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여부, 부모 종교, 본인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현재 타 학과 편입이나 전과 희망여부 등에 따라 영적 안녕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에서는 4학년과 3학년의 영적 안녕감이 1학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3(2002)의 연구에서도 고학년이 될수록 영적 안녕이 증진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특별히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적 안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종교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인 학생이 기타라고 답한 학생보다 영적 안녕감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화인3(2002)의 연구에서 기독교나 천주교 학생이 불교나 무교보다 더 높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한 오복자14(199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상자와 상관없이 종교에 따른 영적 안녕감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상자들을 간호할 때 종교에 따른 영적 간호중재가 달라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본다

또한 기독교인인 경우 신급이 세례와 입교, 학습이 각각 원입보다 더 높았으며, 교회출석기간이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다닌 학생들이 영적으로 더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정기적으로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본인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다고 응답한 군이 만나지 않았다는 군과 모르겠다고 응답한 군보다 영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3(2002)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종교생활 참여도는 영적 안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는 좀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과 문항의 차이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반면, 이화인3(2002)의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를 다 포함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영적안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영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3(2002)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이 회복하다고 생각 할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경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민주적, 비민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영적 안녕감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적 안녕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학과에 만족할수록 영적으로 안녕감이 높았고, 본 대학교의 주된 선택 동기가 기독교 대학(신양)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또한 현재 타 학과에 편입이나 전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영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영적 안녕과 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감은 본인이 지각한 가정경제상태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3(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간호학생들의 영적 안녕은 경제적 상태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 국문초록

인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으로 통합적인 존재로써 각 차원의 건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영적 안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적인 안녕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영적 안녕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영적 안녕을 포함한다 간호과학은 인간의 건강을 돋는 돌봄의 학문이며, 전인적 존재인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영적, 즉 전인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자신이 영적으로 안녕해야 함은 물론, 자신이 간호대상자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영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비록 학생이기는 하지만 재학 중 이미 다양한 간호실무 현장으로 나아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므로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도 전인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해보고 이와 관련있는 제 특성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을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에 소재한 1개 기독교 종합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13명이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목적에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18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최종 분석율 88.3%)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자기 기입형인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영적 안녕 측정도구와 제 특성 20개 문항 등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 안녕 측정도구는 Paloutzian와 Ellison(1983)이 개발하고, 최상순(1990)이 번역하였으며, 강정호(199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Likert형 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9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교관련 특성, 학교관련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3월 3일부터 동년 3월 17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각 학년 강의실에 들어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각 학년 대표를 통해 회수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SPSS/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평균  $63.95 \pm 10.256$  (도구범위 20~80점), 최소 38점, 최대 80점, 평균평점  $3.20 \pm 5.13$ 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실존적 안녕 정도는 평균  $32.98 \pm 4.470$ , 최소 22점, 최대 40점, 평균평점  $3.30 \pm 4.50$ 으로 높은 편이었고, 종교적 안녕 정도는 평균  $30.96 \pm 7.000$ , 최소 10점, 최대 40점, 평균평점  $3.10 \pm 7.00$ 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정도는 학년( $F=6.101$ ,  $p= .001$ ), 종교( $F=17.703$ ,  $p= .000$ ), 기독교인의 경우 신급( $F=8.194$ ,  $p= .000$ ), 교회출석기간( $F=7.947$ ,  $p= .000$ ), 교회예배의 정기출석( $F=4.242$ ,  $p= .000$ ), 정기적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 $F=5.863$ ,  $p= .001=0$ ), 본인이 지각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F=4.160$ ,  $p= .000$ ), 부모종교( $F=9.320$ ,  $p= .000$ ), 본인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F=4.146$ ,  $p= .000$ ), 현재 타 학과 편입, 전과 희망여부( $F=-2.050$ ,  $p= .050$ ) 등에 따라 영적 안녕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간호대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영적 안녕감을 보였으며, 제 특성 중 학년, 종교, 기독교인의 경우 신급, 교회 출석기간, 교회 예배의 정기출석 여부, 정기적 성경읽기(공부)와 기도생활 여부, 본인이 지각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여부, 부모 종교,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현재 타 학과 편입이나 전과 희망여부 등에 따라 영적 안녕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생활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

(N=188)

영 역	항 목	평균평점 ±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실 존 적 안 녕	나는 나의 삶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3 55 ± 640	1, 4
	나는 삶이 갈등에 가득 차 있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	3 48 ± 617	2, 4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	3 39 ± 743	1, 4
	삶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	3 39 ± 633	2, 4
	나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	3 37 ± 663	1, 4
	나는 장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	3 29 ± 729	1, 4
	나는 나의 삶이 별로 즐겁지 않다 †	3 27 ± 717	1, 4
	나는 나의 장래가 좋게 보인다	3 19 ± 626	1, 4
	나는 나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	3 03 ± 685	1, 4
	나는 나의 삶에 꽤 충실히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3 02 ± 665	1, 4
실존적 안녕 정도(평균 32.98 ± 4.470) 최소 22, 최대 40		3 10 ± 700	1, 4
종 교 적 안 녕	나는 신이 인간적이 아니며 나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	3 56 ± 680	1, 4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는 것을 믿는다	3 40 ± 840	1, 4
	나는 신이 나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3 27 ± 814	1, 4
	나는 신으로부터 많은 개인적인 힘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 †	3 12 ± 925	1, 4
	나는 신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안녕감을 느낀다	3 06 ± 907	1, 4
	나와 신과의 관계는 내가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3 00 ± 876	1, 4
	나는 신과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	3 00 ± 841	1, 4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88 ± 936	1, 4
	나는 내가 신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2 88 ± 917	1, 4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78 ± 830	1, 4
종교적 안녕 정도(평균 30.96 ± 7.000) 최소 10, 최대 40		3 10 ± 700	1, 4
영적 안녕 정도(평균 63.95 ± 10.256) 최소 38, 최대 80		3 20 ± 513	19, 4

† 역산문항임

〈표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정도

(N= 188)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t/F/r	p	Scheffe's
학년(년)	1 <sup>a</sup>	43	23.1	2.95 ± 4.98	6.101	.001***	a(b, a(c
	2	50	26.9	3.18 ± 4.94			
	3 <sup>b</sup>	38	20.4	3.27 ± 5.22			
	4 <sup>c</sup>	55	29.6	3.36 ± 4.67			
종교	기독교	173	93.0	3.25 ± 4.80	17.703	.000***	c(a, c(b
	천주교	3	1.6	3.15 ± 4.82			
	기타	10	5.4	2.34 ± 2.68			
	세례 <sup>d</sup>	82	47.6	3.38 ± 4.34			
기독교인경우(n =173)신급 세례a	일교b	43	25.0	3.29 ± 5.25	8.194	.000***	d(b, d(c, d(a
	유아세례	8	4.7	3.20 ± 5.11			
	학습 <sup>c</sup>	22	12.8	3.13 ± 3.67			
	원입 <sup>d</sup>	17	9.9	2.72 ± 3.11			
교회출석기간	모태신앙 <sup>a</sup>	72	41.9	3.38 ± 4.66	7.947	.000***	d(b, d(c, d(a
	초등이전 <sup>b</sup>	24	14.0	3.41 ± 4.18			
	초등부터	15	8.6	3.15 ± 3.53			
	중고등부터 <sup>c</sup>	29	16.9	3.25 ± 4.99			
교회예배 정기출석	대학입학이후 <sup>d</sup>	32	18.6	2.89 ± 3.92	4.242	.000***	
	예	157	91.3	3.29 ± 4.74			
	아니오	15	8.7	2.88 ± 3.43			
	정기 성경읽기(공 부)와 기도생활	예	104	60.1	3.41 ± 4.48	5.862	.000***
본인이 지각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아니오	69	39.9	3.01 ± 4.28	4.160	.000***	b(a, c(a
	예 <sup>a</sup>	105	60.7	3.47 ± 3.97			
	아니오 <sup>b</sup>	23	13.3	2.77 ± 3.69			
	모르겠다 <sup>c</sup>	45	26.0	2.98 ± 3.83			
부모종교	본인이 지각한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범위 1~5)			2.94 ± 8.22	r=.627	.000***	b(a, c(a
	기독교 <sup>a</sup>	103	55.70	3.35 ± 4.64			
	천주교	7	3.8	3.34 ± 4.28			
	불교 <sup>b</sup>	33	17.8	2.90 ± 4.59			
부모님과 동거여부†	기타 <sup>c</sup>	42	22.7	3.04 ± 5.40	r=.090	.222	
	본인이 지각한 가정경제(범위 1~5)			2.94 ± 8.22			
	예	168	91.3	3.17 ± 5.01			
	아니오	16	8.7	3.36 ± 5.89			
입학시 재수, 편입여부	바로입학	137	73.7	3.20 ± 5.20	1.069	.337	
	재수/직장	38	20.4	3.10 ± 4.73			
	편입학	11	5.9	3.38 ± 5.55			
	성경적 <sup>a</sup>	23	12.6	3.56 ± 3.39			
부모 양육태도	민주적 <sup>b</sup>	93	51.1	3.16 ± 5.11	7.563	.001***	b(a, c(a
	비민주적 <sup>c</sup>	66	36.6	3.11 ± 5.06			
	본인이 지각한 가정분위기(범위 1~5)			4.02 ± 6.86			
	기독교대학(신양) <sup>a</sup>	25	13.4	3.50 ± 4.35			
본 대학교 주된 선 택동기	전공이 마음에 듭 <sup>b</sup>	99	53.2	3.12 ± 5.17	4.146	.003**	b(a, c(a
	실력에 맞추어서 <sup>c</sup>	22	11.8	3.05 ± 5.08			
	자신의 이상실현	21	11.3	3.37 ± 4.83			
	기타	19	10.2	3.17 ± 4.56			
현재 타학과 편입, 전과회망	본 학과 만족도(범위 1~5)			4.15 ± 7.68	r=.438	.000***	
	있음	24	13.0	2.98 ± 5.62			
	없음	161	87.0	3.23 ± 5.00			
	하고 있음	166	90.7	3.19 ± 4.96			
동아리활동	하고 있지 않음	17	9.3	3.17 ± 6.71	1.36	.893	

\*p &lt; .05, \*\*p &lt; .01, \*\*\*p &lt; .001, 무응답 제외, † 학업상, 직업상 떨어져 사는 경우는 동거로 간주

## 참고문헌

- 1 김영혜, 권봉숙, 남혜경, 오상은, 이영은, 이지원 등 아동간 호학 총론 서울 현문사,2005
- 2 최상순, 김정숙 간호학생의 영적안녕, 희망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98,4(2) 331~342
- 3 이화인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2,32(1) 7~15
- 4 김미향 영적인녕정도와 영적간호의 중요성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청암대학 논문집 1997,21(1) 1~15
- 5 권혜진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영적간호 인지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89,19(3) 233~239
- 6 정정숙 영적간호 서울 현문사,1998
- 7 김소야자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2004
- 8 신수정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수행[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2003
- 9 송미옥 영적 간호중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안녕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2003
- 10 장인순, 김수미 일부지역사회 노인의 영적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연구 노인간호학회지 2003, 5(2) 192~204
- 11 최순인 입원 노인 환자의 영적안녕과 우울[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2002
- 12 김숙희 입원 노인의 죽음정위와 영적안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2001
- 13 성미순 노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2003
- 14 오복자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 중재와의 관계 간호학연구 1996,5(2) 103~119
- 15 이명화, 강희경, 박진경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전인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2003,Vol 2 7~22
- 16 최상순 일지역 성인의 영적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0
- 17 강정호 암환자의 안녕에 관한 조사연구[석사학위 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1996
- 1 Shelly, J A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3rd ed ,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 2 Paloutzian, J F & Ellison, C 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an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82
- 3 Koenig H G , Moberg, D O , Kvale, J N Religious activity of older adults in geriatric assessment clinic J AM Geriatric Soc 1988 36(4) 362-374
- 4 Herth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hope and level of coping response and other variables in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1989 16(1) 67-72
- 5 Reed, P G (1991)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in older adults extent knowledge for nursing Family community health 14(2), 14-25
- 6 Nelson, P B Religious Orient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990 16(2) 29-35
- 7 Carson, V B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 Phila W B Saunders Co 1989
- 8 Hungelmann J , Kenkel-Rossi E , Lessen L , Stollenwerk L , M Spiritual well-being in older adults harmonious interconnectedness journal of Religional Health 1985 24 147-153